

한국에서의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 가능성:

유럽의 자생적 테러 주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열수

고남대학교 안동대학원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법과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등 전 세계적으로 대형 테러가 발생하였다. 특히, 스페인 및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국제테러분자가 아니라 자국민에 의한 테러였다는 점에서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새로운 테러 주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민 2-3세대들인 스페인 및 영국의 테러범들은 해당 국가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다. 이들의 좌절이 테러로 분출되었다고 본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혼혈아, 그리고 새터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과 멸시도 스페인이나 영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한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정책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테러와 관련된 한국의 미래 상황은 유럽의 현재 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주제어: 새로운 테러 주체, 이민세대, 차별과 멸시,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혼혈아, 구성원

I. 서론

9.11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테러리즘이라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국제적·국내적

제도를 정비하였다. 국제사회는 ‘테러 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협정’을 9.11이후에 새로 재정하였으며, 각 국가들은 기존의 11개에 이르는 국제 조약, 협정, 그리고 의정서 등²⁾에도 서둘러 가입하였다. 미국은 테러리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애국법(Patriot Act)³⁾을 2001년 10월에 제정하였고, 미국으로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물자를 감시하기 위해 2003년 1월, 국토안보부를 창설⁴⁾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만 테러와 테러리즘을 구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진태(1997: 19)를 참조할 것.

2) 이 조약들은 다음과 같다. “탑승객에 대한 공격과 특정한 행위에 관한 동경 조약(1963)”, “항공기의 불법적 납치에 관한 헤이그 조약(1970)”,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에 대한 몬트레이 조약(1971)”, “사람에 대한 범죄의 형태를 취하는 테러 행위와 국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강탈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약(1971)”,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약(1973)”, “인질 행위에 관한 협정(1979)”, “핵 물질로부터 신체적 보호를 위한 조약(1979)”, “국제 항공에서의 폭력의 불법적 행위 금지에 관한 의정서(1988)”, “여객선에서의 폭력의 불법적 행위 금지에 관한 협정(1988)”, “발각되지 않는 플라스틱 폭발물에 관한 협정(1991)”, “폭발물 금지에 관한 국제 협정(1997)”, 그리고 “테러 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협정(2002)”.

3) 원래 명칭은 ‘United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of 2001’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감청 대상의 확대(201조), 감청 정보의 공유(203조), 통신기록 추적(216조), 테러 혐의 외국인에 대해 영장 없이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최고 7일간 구금(412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수색영장 발부(219조), 외국인에 대한 구금 및 추방 요건 강화(412조), 외국학생 감시프로그램 확대(416조), 국제 돈세탁 감소 및 반테러 금융법 강화(301조 이하) 등이다.

4) 국토안보부는 직원 17만 명, 연간 예산 약 450억불을 사용하고 있다. 해안경비대, 이민귀화국, 세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22개 연방기관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흡수된 국토안보부는 국방

1)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으로서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폭력적 행위의 한 형태로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테러(목적)는 테러리즘(수단)을 통해 발생된다는 차원에서 테러와 테러리즘은 엄밀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폭

여타 다른 선진국들도 테러를 포함한 기존의 위기관리조직과 제도 등 위기관리체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최재경, 2002: 31-46; 손동권, 2006: 1-24; 이황우, 2006: 93-126).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대테러 관련법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전통적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재난 및 국가기반체계 붕괴 등 현대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기구도 정비했다.

9.11테러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대테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테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체첸반군의 테러와 그 진압과정에서 200여명이 희생된 사건(2002), 인도네시아에서 200여명의 관광객이 희생된 연쇄 차량 폭탄사건(2002), 190여명이 희생된 스페인 열차 폭탄사건(2004), 영국에서 발생한 지하철 테러사건(2005), 인도에서 발생한 열차 테러사건(2006)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006년 7월에는 9.11을 능가할 항공기 공중폭파 테러 음모가 영국에서 적발되었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열차에서 폭탄 가방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테러는 전 세계를 일상의 9.11로 만들고 있다(Combs, 1997: 220).

최근 유럽에서 테러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뻔했던 테러분자들은 외국인인 아니다. 비록 그들의 종교가 이슬람이긴 하지만 그들의 국적은 유럽 국가들이다. 모두 유럽 국가에서 태어나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자국의 국민들이다. 또한 외국의 테러네트워크와 긴밀히 협조했던 사람들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킨 것이다. 이들이 바로 자생적 테러분자들인 셈이다.

위에서 서술한 세 문단이 한국에 던져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 대부분이 테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테러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 독립에 대한 염원과 종교적 차별

이 테러의 원인이 된다는 점, 같은 국민이면서도 차별과 멸시가 원인이 되어 국제테러보다는 오히려 자생적 테러가 점차 그 빈도수를 늘려간다는 점, 그리고 대테러 관련법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9.11을 능가할 수 있는 테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국도 9.11이후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 관련 규범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 미비⁵⁾하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립했고, 대통령 훈령 제47호인 ‘국가대테러 활동 지침’을 2005년 4월, 전반적으로 재개정하여 국정원에 테러정보통합센터⁶⁾와 국가사이버 안전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를 설립하였다. 9.11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국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대형 테러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남북한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긴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북한에 의한 대형 테러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자생적 테러분자에 의한 대형 테러사건도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비교적 테러의 안전지대에 속하게 될까?

필자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스페인 및 영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 한 자생적 테러사건을 목도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과의 결혼한 2세, 그리고 한국으로 탈출한 새터민들이 동시에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한 부부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새터민들에 대해 한국사회가 관용과 포용 대신 차별과 멸시를 계속해서 한다면 이들도 자생적 테러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수많은 테러 쟁점들 중에서 테러의 잠재적 주체를 찾아내고, 잠재적 테러 주체가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한국사회의 환경을 분석하여, 이들에 의해 테러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생적 테러 사건의 대표적 사례인 스페인 테러, 영국 테러, 그리고 영국 항공기 테러 기도 사건 등의 특징과 교훈을 먼저 도출하여 이를 한국의 잠재적 테러 주체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열수(2006)를 참조할 것.

6) 대 테러리즘 정보통합센터는 테러리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지원하며, 테러리즘 관련 상황을 종합 처리하고, 테러리즘의 취약 요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이다. 주요 업무는 정보분석과 국경안보, 수송, 핵발전소 등 기간시설의 유지 등이다. 국토안보부는 ‘중앙 집중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 개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 진료기록, 신문 잡지 정기구독 현황, 웹 사이트 방문 기록, e-메일, 은행계좌, 여행 예약, 행사 참가 등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토안보법은 아메리카 온라인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에 가입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에 인터넷 검열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2002년 11월 21일자를 참고할 것.

II. 유럽의 자생적 테러 주체에 의한 테러 사례

1. 스페인 테러

1) 테러의 경위

2004년 3월 11일 오전 6시 39분, 첫 폭발을 시작으로 일일 평균 65만 명이 이용하는 스페인 마드리드 남부 아토차(Atocha)역의 4개의 교외선 통근열차에서 10개의 폭탄(총 200Kg)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202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부상당하는 테러가 발생하였다⁷⁾. 테러 발생 28일 후인 4월 3일, 스페인 경찰은 테러범들의 은신처였던 마드리드 남쪽의 한 아파트에서 모로코인 또는 모로코계 스페인인 11명, 인도인 2명, 스페인인 2명, 시리아인 3명 등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하였다. 그 후에도 스페인은 총 76명의 테러 혐의자를 체포하여 25명을 테러범으로 구속하였다. 테러범들은 대부분 모로코계 스페인 이민 2세이거나 모로코인 이었다(홍순남, 2006: 146).

집권 국민당은 바스크분리주의단체(ETA)⁸⁾에 의해 테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비디오테이프 분석 결과 테러범들이 ETA가 아니라 자생적 테러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미국의 대이라크전을 찬성했던 국민당이 참패하고 이라크에서 철군을 주장했던 사회노동당이 승리하게 되었다. 1,300명 규모의 스페인군은 이라크에서 철수하였고 스페인 문화권의 몇 개 중남미 국가들도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철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였다.

2) 스페인 테러의 특징과 교훈

마드리드 테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 등 첨단통신장비를 이용한 초국가적 연계조직에 의해 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스페인 수사당국은 사고현장에서 발

견한 불발폭탄에 장착된 휴대폰과 마드리드 북동부 25Km 지점에서 발견된 도난차량에서 7개의 뇌관과 아랍어로 된 코란의 녹음테이프를 발견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은신처에서 발견된 녹음 테이프에는 알 카에다의 유럽 조직인 ‘알 무프티 여단’과 ‘안사르 알 카에다’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녹음이 되어 있었다는 것과 알 카에다가 “폭탄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점을 추정해 볼 때 마드리드 테러는 알 카에다와 느슨하게 연계된 자생적 조직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첨단 장비가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테러범들은 일회용 무선장비를 이용한 기폭장치를 사용하여 4개의 열차에서 고성능 폭탄 10개를 4-5분 간격으로 폭발시켰다.

셋째, 테러에 가담하는 인원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이다. 마드리드 테러는 휴대폰을 기폭장치로 사용함으로써 자살폭탄 테러가 아니더라도 대형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과 기획팀, 그리고 4개의 열차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테러를 일으키기 위한 행동팀을 합한다면 테러범들의 수는 20명 안팎이 될 수 있다. 스페인은 3.11 범행 용의자 76명 중 25명을 구속 기소하였다(임현준, 2006: 29).

이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스페인 테러가 주는 교훈은, 국제테러집단에 의한 테러가 아니라 자생적 테러범에 의해 대형 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물론 스페인 국적이 아닌 테러범들도 있었지만 모로코계 스페인인이 테러를 주도했다. 특히,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말 주감(Jamal Zougam)은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이민 왔던 스페인 국적의 사람이다. 비록 자말 주감이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 캠프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유럽의 알 카에다 조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가 스페인 국적의 사람으로서 스페인 국민을 향해 테러를 가했다는 점일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스페인 내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지 않았다면 적어도 자국민을 향해 테러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7) 열차폭탄 테러의 시간대별 상황을 살펴보면, 6시 39분 첫 번째 열차가 아토차 역에 멈춰 있을 때 3개의 폭탄이 3,45번 차량에서 폭발하였으며, 거의 동시에 역 500미터 밖에서 두 번째 열차의 1,46번 차량이 폭발하였고, 6시 41분 세 번째 열차가 엘포소(Elpozo)역을 통과할 때 5,6번 차량이 폭발하였으며, 네 번째 열차가 산타에우게니아(Santa Eugenia)역을 통과할 때 4번 차량이 폭발하였다. 임현준, 한국 철도의 테러 정책 발전 방향: 해외철도 테러 사례와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논문(2006), p. 28.

8) Euskadi Ta Askatasuna: Basque Fatherland and Liberty.

2. 영국 테러

1) 테러의 경위

2005년 7월 7일 오전 8시 49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런던 금융 중심가의 지하철에서 연쇄 폭탄 폭발사건이 발생하여 56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부상당하는 테러가 발생하였다⁹⁾. 테러범 4명¹⁰⁾은 4.5Kg이 든 폭탄배낭을 메고 킹스크로스역으로 집결하여 목표물을 향해 분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명 모두 파키스탄계 영국 시민권자이며 폭발현장에서 숨졌다. 런던 경찰은 실종자와 테러에 관련된 신고전화 12만여 통 중에서 이층 버스 폭발범의 어머니가 이들의 실종신고를 하면서 단서를 찾았다. 기습부위가 훼손된 시체에서 테러범의 신분을 확인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테러범의 은신처를 급습하였다. 또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지하철 CCTV 화면 5,000개를 분석하여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사건 발생 7일 후에 테러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마드리드 테러로 스페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을 목격한 알 카에다는 모든 이라크 파병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테러범들의 목적이 영국군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영국군 8,000여 명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

2) 영국 테러의 특징과 교훈

런던 테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대형 테러가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점이다. 테러범 4명은 폭탄 배낭을 메고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에 탑승하여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이다. 이 방법은 테러범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둘째,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테러범들이 자폭했기 때문에 그 배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4명의 테러범 중 2명이 파키스탄의 알카에다 캠프에서 훈련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¹¹⁾. 굳이 ‘알 카에다 유럽조직’이라는 테러집단의 명칭을 정하지 않더라도 알 카에다에 충성하는 테러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알 카에다가 테러라는 상품의 브랜드(홍순남, 2006: 159)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영국 테러가 주는 교훈은, 국제테러집단에 의한 테러가 아니라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교육받은 자국민에 의해 대형 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스페인,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이들 국가에서는 아프리카계 이민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들의 자손들이 바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국가에서 소수자(minority)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갖은 차별과 멸시가 이들을 테러로 인도한 것으로 본다.

3. 영국발 항공기 테러 기도사건

1) 항공기 테러 기도의 경위

영국 경찰은 2006년 8월 9-10일 간 알 카에다와 연계된 항공기 폭파테러 기도자 2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당국도 자국민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월 16일을 D-day로 런던발 미국행 항공기 5대를 뉴욕·워싱턴·보스턴·시카고·로스앤젤레스 등 5개 도시에서 동시 폭파하고, 2차로 미국행 항공기 12대에 탑승하여 미국·대서양 상공에서 폭파하려 했다. 이들은 스포츠 음료에 액체 폭발물을 넣고 카메라 또는 MP3에 숨긴 기폭장치를 연결하여 항공기를 폭파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폭파 대상 항공기는 유나이티드·아메리칸·컨티넨탈 항공사 소속 여객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2006: 6).

영국 보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테러 계획은 실행 직전 단계에 있었으나 공모자 중 일부가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뒤 보안당국이 테러계획을 파악하여 최종단계에서 무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9) 3개 지하철역과 역 사이, 또는 역, 그리고 버스 등 4곳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홍순남, 2006: 154).

10) 모하메드 시드칸(30세)은 빈민층 이민 자녀와 장애아를 돕는 초등학교 보조교사였으며, 세흐자드 탄위어(22세)는 체육학을 전공한 대학생으로서 벤츠를 즐겨 타는 성공한 이민 2세였다. 2층 버스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한 사람은 하시브 후세인(19세)이었다.

11) 세흐자드 탄위어와 모하메드 시드칸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파키스탄의 알 카에다 캠프에서 훈련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영여객기 폭파 음모 런던 지하철 테러와 연관 가능성”, 연합뉴스(2006. 8. 12).

2) 항공기 테러 기도의 특징과 교훈

항공기 테러 기도의 특징은 첫째, 테러에 액체 폭발물을 사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액체폭발물은 과산화수소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짐화장치는 소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회용 카메라, MP3 플레이어 또는 휴대폰인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 기도 사건은 9.11 테러를 기획한 칼리드 사이크 모하메드가 1995년에 추진하려 했던 ‘보진카 계획’¹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이 테러범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성이 자폭 테러범으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여성이 테러범으로 등장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영국 항공기 테러 기도사건의 테러 용의자 24명 중 3명이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후 8개월의 아기 어머니는 젖병에 액체 폭탄을 넣어 기내에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2006. 8. 16).

이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항공기 테러 기도가 주는 교훈은, 테러 용의자 24명이 모두 영국 이민 2-3세(파키스탄계 22, 방글라데시 1, 이란 1)인 영국인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17-34세인 이들은 대학생, 히드로 공항의 전 보안요원, 피자 배달원, 보수당의 전 정치인 아들, 중고차 판매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공통점은 이민 2-3세, 이슬람 신자, 그리고 런던에서 거주한다는 것이었다(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2006: 8). 런던 7.7테러 처럼 항공기 테러 기도 용의자들은 모두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국인이라는 점이다.

스페인 테러, 영국 테러 및 항공기 테러 기도 사건이 던져주는 함의는, 이슬람 지역에 대한 서구의 개입 금지 경고, 대형 테러에는 알 카에다라는 브랜드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 테러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점, 결심만 하면 테러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 테러의 수단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논문의 목적과 관련

12) ‘보진카 계획’은 칼리드 사이크 모하메드가 대만·싱가폴 등 동남아를 출발하여 한국·일본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11대를 폭파시키려던 암호명이다. 액체폭발물을 콘택트 렌즈 세척액에 숨겨 반입하여 카시오 손목시계를 이용하여 폭파시킨다는 이 계획은 테러범들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폭탄 혼합과정에서 실수로 화제를 내는 바람에 체포되어 실패로 끝났다(한국일보, 2006. 8. 11).

된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은 국제적 테러집단이 아니라 자국민에 의해 대형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테러범이나 테러 기도범들이 대부분 이민 세대들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부 색깔과 종교면에서 유럽 본토박이들과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이들 테러범들이나 테러 기도범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인식은 본토박이들로부터 받은 좌절과 서러움일 것이다. ‘기대와 실익간의 괴리’ 또는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간의 차이’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또는 좌절감 때문에 발생하는(Gurr, 1970: 18) 사회 심리적 요인이 이들을 테러범으로 몰고 간 것으로 본다.

유럽 테러에서의 교훈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제3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의 자녀, 그리고 탈북자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본토박이에 의해서도 테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럽테러와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III. 비본토박이들과 국제결혼 후손들의 좌절

1.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자와 그 후손

1) 현황과 함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 올림픽을 통해 그 위상을 세계에 알린 국가, 인력난은 가중되지만 고학력의 영향으로 3D 산업에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남성 초과적 성의 불균등과 이로 인한 농촌 총각들의 결혼 곤란 등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이 변수가 되어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국의 공장·건설현장·식당·농장·어장 등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이 기피하고 있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이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일정 부분을 전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다(설동훈, 2001: 53). 농촌으로 시집오기를 기피하는 한국 여성들 대신 이를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농촌은 물론 한국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외국인 남성 근로자와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987년, 6,000여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5년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35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의 추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 1987-2005년

(단위: 명)

연도	전체	합법체류자						미등록 노동자
		소계	전문기술 인력	취업 인력	사증 소지자	내향 취업자	산업연수생	
1987	6,409	2,192	2,192	-	-	-	-	4,217
1988	7,410	2,403	2,403	-	-	-	-	5,007
1989	14,610	2,474	2,474	-	-	-	-	12,136
1990	21,235	2,833	2,833	-	-	-	-	18,402
1991	45,449	3,572	2,973	-	-	-	599	41,877
1992	43,664	12,765	3,395	-	-	3,932	5,438	30,899
1993	68,500	13,992	3,767	-	-	3,759	6,466	54,508
1994	81,824	33,593	5,265	-	-	18,816	9,512	48,231
1995	128,906	47,040	8,228	-	-	23,574	15,238	81,866
1996	210,494	81,440	13,420	-	-	38,296	29,724	129,054
1997	245,399	97,351	15,900	-	-	48,795	32,656	148,048
1998	157,689	58,152	11,143	-	-	31,073	15,936	99,537
1999	217,384	82,046	12,592	-	-	49,437	20,017	135,338
2000	285,506	96,511	17,000	-	2,063	58,944	18,504	188,995
2001	329,555	74,349	19,549	-	8,065	33,230	13,505	255,206
2002	362,597	73,358	21,506	-	12,191	25,626	14,035	289,239
2003	388,816	250,760	20,089	159,706	20,244	-	38,895	138,056
2004	420,702	232,219	20,272	126,421	48,937	34	28,125	188,483
2005	345,911	165,119	23,609	52,305	50,703	212	32,148	180,792

자료: 설동훈·이해춘(2005: 18).

국제결혼의 건수와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4,70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 35,447건으로 늘어났다. 이를 한국의 총 결혼건수와 비교해 본다면 1990년에 국제결혼이 차지했던 비율이 1.2%이던 것이 2004년에는 11.4%로 증가했다(강휘원, 2006: 53). 2005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총 결혼건수는 316,375건이었고, 그 중 국제결혼이 43,121건을 차지함으로써 그 비율은 무려 13.6%에 달했다. 한국여자와 외국인 남자와의 결혼은 11,941건이었고,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결혼은 이의 3배 가까운 31,180건이었다.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결혼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2005년)

	남편 혼인종류 2005/총계	초 혼	재 혼(계)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미 상
총계	31 180	17 277	13 480	1 244	12 236	423
일본	1 255	1 033	151	6	145	71
중국	20 635	9 519	10 826	1 016	9 810	290
미국	285	207	75	15	60	3
필리핀	997	700	288	24	264	9
베트남	5 822	4 296	1 492	139	1 353	34
태국	270	205	64	3	61	1
러시아	236	136	98	8	90	2
몽골	561	354	199	11	188	8
기타	1 119	827	287	22	265	5
	남편 혼인종류 2005/총계	초 혼	재 혼(계)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미 상

자료: 통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kosis.nso.go.kr:7001/ups/chapterRetrieve.jsp?pubcode=CA&seq=59&pub=3>).

<표 1>과 <표 2>가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학력 인력이 3D 업종을 꺼려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 노동자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 숫자는 유동적일 수 있으나 정부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한국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산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 자신의 자아성취의 결핍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의 높은 교육비와 생활비, 사회적 보육망의 미비, 맞벌이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의 이유(한겨레, 2007. 2. 14)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최소한의 자녀만을 가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¹³⁾과 최단시간 내에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노동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통·통신

13)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 2000년 1.47명,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으로 급락하여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이데일리, 2007. 2. 23).

의 발달과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이 국가간의 노동 경계선을 허물게 되어(홍원표, 2006: 9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농촌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기도 하고, 한국 여성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하기도 한다. <표 2>만으로는 농촌 총각의 외국인 여성 결혼 비율과 한국 여성의 외국인 근로자 결혼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혼 상대국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단일민족'을 넘어서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가운데 초·중·고에 재학중인 혼혈아가 이미 9천여 명이며, 2010년에는 그 숫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연합뉴스, 2006. 11. 13). 이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국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는가? 불행히도 정부와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했으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추세를 감안하여 이들과 이들의 2세를 포용하는 다민족·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에 인색했다고 본다. 다음에서는 이들의 고통과 좌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통과 좌절

한국사회의 소수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들과 이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이 강도 높은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강휘원, 2006: 6). 이들이 받는 고통과 좌절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설동훈(2001: 53)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자기 나라보다는 몇 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산업장애를 당하여 장애인인 된 사람,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 송금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된 사람, 폭행·성

폭행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목돈을 모아 귀국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인간적 모욕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즉, 한국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탄압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변해 가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고충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시간 노동(61.1%), 저임금(46.7%), 폭행 및 괴롭힘(22.8%), 임금체불(20.6%), 열악한 작업조건(20.1%), 한국인과의 차별(18.9%), 폭언 및 모욕(17.9%), 산업재해 및 직업병(15.3%),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14.9%) 등이다(설동훈, 2002: 269-271).

이들이 겪는 고충 중에서도 이들을 좌절케 하여 분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폭행 및 괴롭힘, 폭언 및 모욕 등이 될 것이다. 그들의 요구는 “월급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체포되어 추방되리라는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 종일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기계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제발 말로 해 주세요!(김윤규, 2005: 243)” 등 대부분 최저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다.

국제결혼이 가져온 폐해도 많지만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폐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의미한 조사 결과는 없다. 그러나 대구 이주 여성인권상담소가 2006년 이주 여성들과 상담한 결과는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주 여성 5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임신 상태에서 구타당한 채 쫓겨나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또는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06. 11. 13). 또한 2006년 이주여성의 이혼도 2,444건으로 2004년보다 무려 51.7%가 증가(연합뉴스, 2006. 11. 13)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혈아들에 대한 편견과 이들에 대한 놀림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니얼 헤니와 하인스 워드, 토비 토슨, 인순이, 윤수일 그리고 윤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은 오히려 예외적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 2세들의 한국어 구사력이 어눌할 수밖에 없어 2세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에 없다. 또한 한국 토박이들과 다른 피부색깔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도 한다. 같은 혼혈이라도 유복한 집안에서 백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2세와 동남아 출신 어머니를 둔 2세에 대한 한국 본토박이들의 차별도 심하다. 혼혈인에게도 ‘등급’이 있는 것이다. 친구들의 수군거림, 학업 부진, 자신에 대한 왕따 현상 등으로 혼혈아들은 한국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어가고 있다.

2. 새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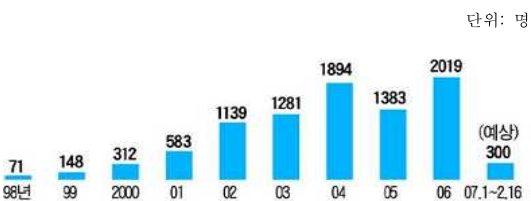
1) 현황과 함의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입국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이전까지 이들 입국자 수가 수 십명 단위 수준에 머물렀으나 1999년 이후에는 백 명 단위 수준, 2002년 이후에는 천 명 단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이경희·배성우, 2006: 2). 2006년에는 2,000명이 넘어섰다. 탈북자 입국 10여 년 만에 1만 명이 되었지만 향후 5년도 채 되기 전에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2007. 2. 20).

2000년부터 2004년 6월 까지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4,075명의 탈북 동기를 살펴보면, 생활고가 2,263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하였으며, 북한에서 당을 비판하거나 범죄 행위를 하여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 탈출한 인원이 356명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또한 북한체제에 불만을 품고 탈북한 인원은 367명으로 16.2%였다(양무목, 2004: 16-17).

최근 10년간 연도별 탈북자의 입국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최근 10년간 탈북자 현황



자료: 조선일보(2007. 2. 20.).

<표 3>은 탈북의 동기가 무엇이든 탈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 식

량난, 그리고 에너지난이 지속되는 한 생활고로 인한 북한의 탈북자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김정일 체제가 지속되는 한 탈북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도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새터민¹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나원을 개원하여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정착금도 지급하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은 쉽지 않다. 다음에서는 터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좌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통과 좌절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① 기초지식과 정보의 부재로 인한 곤란, ② 언어 이질화 문제, ③ 생활 및 사고방식의 차이, ④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⑤ 남한 주민들 대비 경제적 빈곤감, ⑥ 남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경멸, ⑦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열등감 등이다(김영수, 2002). 이러한 어려움은 새터민들의 연간 소득 1,400만원 내외(남한 근로자는 2,780만원), 실업률 28%(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3.5%), 고등학교 취학률은 6.6%(한국은 2003년 기준 99.3%) 등(조선일보, 2007. 2. 20) 새터민들에 대한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새터민들이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그리고 20세 이하 새터민 중 상당수가 무학자 또는 학교 중퇴자이고, 북한을 떠난 이후 제3국 체류기간이 3~5년으로 장기화되면서 학력 결손이 심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양무목, 2004: 26). 그러나 남한사람들이 새터민들을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혼재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새터민 학생들에게 북한말을 억지로 시키거나 새터민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가 같은 민족인 새터민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들을 감싸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한국사회로부터 소외

14) 2005년 1월 9일부로 통일부는 탈북자를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새터민은 탈북자 중 한국으로 탈북한 인원을 지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를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 갖은 고생 끝에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려고 입국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면 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 꿈은 고통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같은 민족인 새터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감정적으로 다르다. 친구로부터 차별받는 것과 형제로부터 차별받는 것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자 및 그 2세, 그리고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계속 차별을 받아 좌절하게 된다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다. 또 한국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세력들은 이들의 불만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도 있다. 테러도 한국사회의 불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대형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과 그렇지 않은 가능성을 스페인·영국 테러범과의 차별성과 유사성으로 구분하여 이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IV. 새로운 테러 주체에 의한 대형 테러의 불가능성과 가능성

1. 대형테러 불가능성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자, 새터민 등 이른바 한국의 비본토박이들과 국제결혼 후손자들은 스페인 테러범이나 영국 테러범과는 다르다. 이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 면에서 차이가 있다. 스페인 및 영국은 기독교인테 반해 테러범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충돌의 역사는 길다. 특히,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이후 150년간이나 지속되었던 서구의 이슬람 식민지배로 인해, 이슬람 세계는 일찍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패배를 맞보았다(하정호, 2001: 89). 결국 이란의 호메이니는 유럽 기독교권에 맞서 최소한 동등했거나 때로 승리했던 과거의 영광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찾으려 했다. 현대에 등장한 이슬람 근본주의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당면하게 된 근대화 과정 속에서 겪은 좌절에 대한 반작용이며(하정호, 2001: 89), 이는 테러분자들의 정신적 신념으로 재무장되고 있다.

유럽과 이슬람 국가 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대칭선이 존재한다. 9.11테러도 그러했지만 영국·스페인 테러범들은 모두 이슬람교 신도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 특정한 종교가 국교의 역할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차이로 인해 서로를 차별하지도 않는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출신 국별 종교에 따라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특히, 탈북자의 경우에는 종교가 거의 없는 편이나 새터민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종교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들이 한국에서 대형테러를 일으킬 이유는 없다.

둘째, 침략의 역사면에서 차이가 있다. 스페인이나 영국은 과거에 식민지를 경략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 사람들이 식민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고 이들의 2세 중 일부가 테러범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에 식민지를 경략한 경험이 없다. 식민국과 식민지라는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서로 간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대해 역사적 부채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대해 역사적 증오를 가질 필요가 없다. 특히, 새터민의 경우에는 비록 6.25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북한을 탈출한 입장에서 한국에서 대형테러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

셋째, 알 카에다 브랜드와의 연계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스페인 및 영국의 테러범 및 테러 기도범들은 알 카에다와 연계가 있었다. 이들 테러범들이 알 카에다의 유럽 조직이든 또는 세포화된 자생적 조직이든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알 카에다와 연계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알 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새터민들의 경우에는 더 더욱 알 카에다와 연계될 이유가 없다. 근본주의자의 대표적인 알 카에다와 연계가 없다는 입장에서 이들이 한국에서 대형테러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

넷째, 테러의 발생여부이다. 영국 및 스페인에서는 이민 2세들에 의해 테러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뻔했다. 유럽의 이민자들이 잠재적 테러분자로 오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본토박이들에 의해 대형테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 한 적도 없다. 외국의 근로자들이나 또는 새터민들에 의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섯째, 이민 2세의 존재여부이다. 영국 및 스페인에서는 테러를 일으킬 적령기에 속하는 이민 2세, 3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민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와의 2세들도 아직 어리다. 또한 새터민들은 이민을 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이민 2세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은 영국이나 스페인 상황과 다르다.

2. 대형테러 가능성

한편, 스페인·영국 테러범과 한국의 비본토박이 및 국제결혼 후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도 있다. 이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유사성이 있다. 스페인 및 영국은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병하였다.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거버넌스의 입장에서 이들 국가에 병력을 파병하였다. 비록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이슬람 국가에 외국군이 들어왔다는 것을 근본주의자들은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이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하고 있을 때, 알 카에다의 2인자로 알려진 아이만알 자와히리는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국 동맹들의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지도부를 구성해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라(2004.10.1)고 촉구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04. 10. 12). 또한 국가정보원은 알 카에다 조직원이 지난 10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들어온 일이 있다(“알 카에다 조직원들 10년간 2차례 한국 입국”, 한겨레, 2003. 11. 20)고 밝히기도 했다. 스페인·영국처럼 한국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파병했고, 또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형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둘째, 이민세대,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유사성이 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반면, 한국에는 주로 아시아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영국·스페인 테러범들 대부분이 이슬람계 이민 2세였다. 2005년 12월의 법무부 통계를 보면(설동훈·이혜춘, 2005: 19),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이슬람 국

가에 속하는 근로자는 5만 명 정도이다¹⁵⁾. 2007년 2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대테러 사령탑인 브뤼기예르 수석 판사는 오늘날 테러의 특징을 테러의 세계화로 요약하면서, 테러조직이 한국을 경유할 가능성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동 사람들 속에 테러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다(중앙일보, 2007. 2. 27). 외국 의 반한단체가 한국에 대한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편지가 현지 대사관에 날아들기도 한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있다가 귀국하여 반한단체를 조직한 경우인데, 태국의 AKIA(Anti Korea Interest Agency)가 그 대표적이다¹⁶⁾. 또한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6년 12월까지 검거된 간첩은 총 17명이었으며, 그 중에는 새터민 간첩도 있었다¹⁷⁾. 특히, 새터민 간첩은 탈북자로 위장 귀순한 뒤 1년 3개월 동안 국내에서 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노동자가 알 카에다와 연계될 경우, 그리고 새터민이 북한의 지령을 받을 경우, 한국도 대형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셋째, 영국·스페인의 이민 2세들처럼,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혼혈아, 그리고 새터민들이 한국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유럽 테러는 본토박이가 아닌 비본토박이로서 겪는 고통과 좌절이 특수한 환경과 접목되면서 발생되었다고 본다. 한국의 본토박이들이 2등 국민, 피부색, 언어, 종교, 가난 등을 이유로 비본토박이 및 국제결혼 후손자들에게 폭언, (성)폭행, 임금 체불, 무시, 왕따 등의 차별을 지속한다면 이들의 좌절감이 한국인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 대형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다.

V. 나오며

15) 인도네시아 23,495명, 방글라데시 13,781명, 파키스탄 9,644명 등 총 5만 명 정도에 이른다.

16) AKIA는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기관과 국적 항공기 등을 겨냥해 테러공격을 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냈고(2004.1.8), 구체적인 테러 공격 일자가 명시된 편지도 보냈다(2004.1.16). 또한 태국의 돈무앙 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소에 테러 협박편지가 접수(2004.4.23)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진태, 한국 관련 테러 공격 협박 사건 분석(www.terrorism.or.kr)을 참고할 것(검색일: 2004.11.27).

17) 조선일보가 2006년 12월 12일, “간첩 많은데 안 잡았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정원이 해명한 국정브리핑 내용의 일부임.

유럽의 테러 사건과 테러 기도 사건을 일으킨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유사정보는 상이성이 더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가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에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에 자국민인 이민 2세들에 의해 테러가 발생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민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프랑스에서 2005년 10월 발생한 소요사태는 테러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이민자 2세 10대 소년 2명이 숨지면서 발생한 폭동은 테러를 넘어 소요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소요사태가 길어지면서 3,300여대의 차량과 수십 채의 건물이 불에 탔으며 일부 경찰관은 총격으로 부상까지 당했다. 소요사태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80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서울신문, 2005. 11. 7).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으로 이민자들을 관용(tolerance)으로 대했던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매년 10-15만 명의 북아프리카계 출신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프랑스 실업률 평균의 3배가 넘는 30%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연합뉴스, 2005. 11. 7). 이슬람 이민 2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 등에서 노골적인 차별로 가난을 대물림되자 그 동안 쌓였던 좌절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되었다고 본다.

9.11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법 등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영국 테러 사건이 보여주듯이 대형테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테러를 넘어 소요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테러에 대처하는 제도만으로 테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가 테러를 대응요법으로 치료할 뿐,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는 무관심한 편이기 때문이다(김열수, 2002: 94-96).

유럽의 테러사건이나 프랑스의 소요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민자들에 대한 대물림된 가난과 사회의 편견 속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다. 비본토박이와 국제결혼 후손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도 이들 나라 못지않다. 한국도 테러가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미리 원인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테러 예방이라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라는 인류애,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이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없애야 하고, 국민들의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한다. 40만 명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매년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여 2010년에는 혼혈아 취학생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새터민들이 1만 명 이상이 되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2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변화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시민사회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더 이상 민족임을 주장하거나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이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이런 노력을 기울린다면 테러와 관련된 한국의 미래 상황은 유럽의 현재 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3.
-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2006. 월간 테러정세. 2006. 9.
- ▷ 김열수. 2002.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균열. 국가전략. 8(3): 79-107.
- ▷ 김열수. 2005.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서울: 오름.
- ▷ 김영수. 2002. 탈북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심포지움 발표.
- ▷ 김윤규. 200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폭력극복을 위한 대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 ▷ 설동훈. 200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2(1): 53-87.
- ▷ 설동훈. 200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 설동훈·이해춘. 2005. 외국국적 동포 고용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노동부 정책보고서.
- ▷ 손동권. 2006. 주요국가의 대테러법안 강화실태. 대테러 논총. 3.
- ▷ 양무목. 2004.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통일논총. 3.
- ▷ 이경희·배성우. 200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1-28.
- ▷ 이황우. 2006. 주요 선진국의 대테러정책 조명. 대테러 논총. 3.

- ▷ 임헌준. 2006. 한국 철도의 테러 정책 발전 방향: 해외철도 테러 사례와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논문.
- ▷ 최재경. 2002. 세계의 비상대비변화추세 분석과 우리의 대응. 비상기획보. 61: 31-46.
- ▷ 최진태. 1997. 테러,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 ▷ 하정호. 2001. 굿바이 헌팅턴, 굿바이 아우슈비츠. 당대비평·평화 네트워크 공동기획. 전쟁과 평화. 서울: 삼인.
- ▷ 홍순남. 2006. 3.11마드리드 테러와 7.7런던테러 비교 분석. 대 테러 논총. 3.
- ▷ 홍원표. 2006.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변화와 과제. 민족연구. 28: 87-126.
- ▷ Combs, Cindy C. 1997.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 Gurr, Ted R. 1970.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서울신문. 2005.11.7일자.
- ▷ 연합뉴스. 2005.11.7일자.
- ▷ 이데일리. 2007.2.23일자.
- ▷ 조선일보. 2006.12.12일자.
- ▷ 조선일보. 2007.2.20일자.
- ▷ 중앙일보. 2007.2.27일자.
- ▷ 연합뉴스. 2004.10.12일자.
- ▷ 연합뉴스. 영어객기 폭파 음모 런던 지하철 테러와 연관 가능성. 2006.8.12일자.
- ▷ 연합뉴스. 2006.11.13일자.
- ▷ 한겨레. 알 카에다 조직원들 10년간 2차례 한국 입국. 2003.11.20일자.
- ▷ 한겨레. 2007.2.14일자.
- ▷ <http://www.terrorism.or.kr>. 한국 관련 테러 공격 협박 사건 분석 (검색일: 2004.11.27).

金烈洙: 서강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UN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증감원인과 성패요인 분석),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전통적 안보와 테러리즘 등이며,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2000)”, “21세기의 세계 질서: 변혁시대의 적응논리(2003)”,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2005)” 등의 저서와 주요 논문으로는 “해외과병 정책결정의 변수와 협상전략(2006)”, “유엔 평화강제활동 실패 원인인 실패의 유산(2006)”, “세계 위기관리추세변화와 한국의 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2004)”,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의 양상과 전망(2004)”, “동티모르 재식민지화와 독립: 서방권 국가들의 구성주의적 행위를 중심으로(2003)”,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규율(2002)” 등이 있다(ysgold@kndu.ac.kr).